

‘지난주 전승’ KIA, 선두 독주 체제 굳힌다

23~25일 NC전·26~28일 키움전

최근 6연승... 2위 LG와 6.5경기 차 ‘깜짝 활약’ 김도현 선발 연착륙하나 타선서는 최형우·서건창 ‘5할 맹타’

본격적인 우승 레이스에 돌입한 KIA타이거즈가 선두 질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근 6연승을 달리며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이번 주 독주 체제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KIA는 지난주 삼성라이온즈와 주중 홈 3연전에서 첫 경기를 그라운드 사정 취소로 휴식한 뒤 두 경기를 내리 가져오며 위닝 시리즈를 쟁겼다. 이어 한화이글스와 주말 원정 3연전을 싸붙이하며 전승 가도를 달렸다.

이 사이 KIA는 가을야구권에 진입한 팀들과 격차를 벌렸다. 2위 LG트윈스와 6.5경기 차가 됐고 3위 삼성라이온즈는 7.5경기, 4위 두산베어스는 9.5경기, 5위 NC다이노스는 10.5경기 차로 벌어졌다.

투수진에서는 이범호 감독이 7선발로 낙점한 김도현이 로테이션에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화전에 올 시즌 첫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2피안타만 허용하며 1실점(비자책)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68구로 투구 수 관리에도 성공했고, 탈삼진은 4개를 쟁겼다.

야수진에서는 0.362에 달하는 팀 타율과 1.040에 이르는 OPS(출루율+장타율)를 합작했다. 특히 최형우가 0.533(15타수 8안타 9타점 6득점), 서건창이



KIA타이거즈가 23일부터 NCD다이노스와 홈 주중 3연전, 26일부터 키움히어로즈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 선수단이 지난 21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0.500(10타수 5안타 3타점 2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렀고 김도영이 0.467, 소크라테스가 0.435로 4할을 웃도는 타격감을 과시했다.

●공룡만 만나면 펄펄 나는 호랑이
NC다이노스는 지난주 우천 취소로 두 경기를 쉬 가운데 주중에는 한화에 2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쟁긴 뒤 주말에는 KT와 1승 1패를 나눠 가지며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순위는 6위에서 5위로 올라섰으나 KIA와 격차는 9경기에서 10.5경기로 벌어졌다.

KIA는 올 시즌 NC에게 가장 강했다.

아홉 차례 맞대결에서 8승 1패를 챙기면서 세 차례 3연전을 모두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고, 최근 NC를 상대로 6연승을 달리고 있다.

KIA는 양현종과 캡 알드레드, 김도현이 선발로 나선다. 양현종은 올 시즌 NC의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승패는 없었지만 12이닝을 3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했다. 알드레드와 김도현은 NC를 상대로 첫 등판이다.

NC는 다니엘 카스타노와 신민혁, 카일 하트로 이어지는 최상위 선발진으로 맞선

다. 카스타노는 KIA와 한차례 맞대결에서 7이닝 3실점(2자책점)으로 위력투를 펼쳤다. 신민혁은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2이닝 6실점으로 크게 고전했고, 하트 역시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10이닝 11실점(9실점)으로 2패를 안는 등 좋지 못했다.

●영웅에게도 강한 호랑이 군단
키움히어로즈는 지난주 4연패에 빠지는 등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

KT와 주중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스윙패를 당했고, SSG와 주말 3연전에서는 1승 1패(우천 취소 1경기)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4패 후 1승으로 연패의 흐름에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94	57	35	2	0.620	-
2	LG	95	51	42	2	0.548	6.5
3	삼성	95	50	43	2	0.538	7.5
4	두산	97	49	46	2	0.516	9.5
5	NC	91	45	44	2	0.506	10.5
6	SSG	93	46	46	1	0.500	11
7	KT	94	45	47	2	0.489	12
8	롯데	91	39	49	3	0.443	16
9	한화	93	38	53	2	0.418	18.5
	키움	91	38	53	0	0.418	18.5

서 벗어났고, 한화가 최근 7연패에 빠지며 공동 9위로 올라선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KIA는 올 시즌 키움에게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다섯 차례 맞대결에서 4승 1패로 우위를 점했고, 한차례 3연전에서는 싸붙이 승리를 챙기면서 키움을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KIA는 제임스 네일과 황동하, 양현종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다. 네일과 황동하는 키움을 상대로 첫 등판한다. 양현종은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챙긴 바 있다.

키움은 대체 선발을 기용한 뒤 후라도와 헤이스스가 연달아 나와 전망이다. 김선기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김윤하가 우천 취소로 휴식을 취한 뒤 순번을 당하게 되면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는 상황이다. 후라도는 한차례 맞대결에서 4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고 헤이스스는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6이닝 3실점으로 무난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역대급 흥행’ K리그, 200만 관중 넘었다

282경기 만... 역대 최소 경기

K리그에 훈풍이 불고 있다. 282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넘어서면서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빠른 페이스를 보였다. 종전 최소 경기 기록보다 42경기를 덜 치르고 달성한 기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24라운드 기준 누적 관중수 150만6529명, K리그2 23라운드 기준 누적 관중수 53만6408명으로 합계 204만2937명의 누적 관중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3시즌 승강제 도입 후 최소 경기 200만 관중 돌파 기록이다. K리그는 지난 시즌 324경기 만에 202만2026명이 입장하며 승강제 도입 후 최소 경기 2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웠는데 이를 올해

282경기(K리그1 144경기·K리그2 138경기) 만에 잡아차였다.

관중 증가 추이도 눈에 띈다. 올 시즌 K리그1 24라운드 기준 누적 관중수는 지난 시즌 같은 기간 146만9703명 대비 약 2.5% 증가했다. 특히 K리그2의 경우 23라운드 기준 누적 관중수는 지난 시즌 같은 기간 30만212명 대비 78.7% 폭증했다.

K리그1 광주FC와 K리그2 전남드래곤즈 역시 흥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는 지난 시즌 4531명의 평균 관중을 올 시즌 5074명까지 끌어올리며 1부리그 최하위에서 탈출했고, 6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시즌 평균 관중이 2073명에 그쳤으나 올 시즌 4182명으로 2부리그 3위까지 뛰어올랐다. 한규빈 기자

광주체육고 나현주, 회장배 중고육상대회 400m 금

광주체육고 나현주(3년)가 회장배 제22회 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m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22일 광주체육고에 따르면 나현주는 지난 19~22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고부 400m에서 47초 93 기록으로 총남체고 양승우(48초64)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나현주는 이번 금메달로 올해 남고부 400m 랭킹 1위로 올라서며 오는 10월 열

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나현주는 남고부 200m에도 출전해 21초73의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나현주는 “최근 우리 학교 단거리 선수들이 연이어 개인 최고기록을 달성하면서 분위기가 오르고 있다”며 “더욱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동환 기자

‘韓 최고령’ 이보나 “선배로서 책임감 크다”

43세

2024 파리 올림픽 광주·전남 태극전사 <2>

30~31일 사격 여자 트랩 출전
2004년 아테네 대회서 銀·銅
“후배들 위해 족적 남기겠다”

신안에서 태어나 농성초-광주서광중-전남여고를 나온 이보나(43·부산시청)가 사격 인생 마지막이 될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더블 트랩 은메달, 트랩 동메달을 차지하며 깜짝 활약을 펼쳤던 그는 20년 만에 영광을 재현해 사격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이보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 같다. 실력이 더 좋아진다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생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이다”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부담도 되고 의욕도 더 크지만 생각을 줄이고 원반에만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2004 아테네 올림픽에 나서 한국 최초로 클레이 사격(산탄총)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 기록은 2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한국 선수단 중 최고령으로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에 도전하는 셈이



한국 사격 국가대표팀 이보나가 지난 2018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사격 더블 트랩 경기에 임하고 있다. AP=뉴시스

다. 이보나는 “20년 전에는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나갔다가 메달을 두 개나 땀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무거워질 줄 몰랐다. 감

회가 새롭다”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재밌게 싸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무대에 나서는 그의 목표는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클레이 사격 실업 팀은 여덟 곳, 이중 세 팀은 인원 부족으로 대회가 열려도 개인전에만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보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무언가 반드시 남기고 가야 한다.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며 “클레이 사격 실업 팀이 적은 상황이지만 이번에 메달을 따서 관심이 높아지면 좋은 환경의 실업 팀도 생기고 진로를 선택하는 선수들도 늘어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한 당부도 남겼다.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인 만큼 메달이라는 결과보다는 본선에 나서는 과정에 집중하고 자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다.

그는 “선수들에게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며 “올림픽에서 메달을 땀다고 해서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고, 메달을 못땀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다. 올림픽을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출전에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규빈 기자